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²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²²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²³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²⁴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²⁵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19:21-25)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 즉 진리와 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 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은 그들에게 있는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의 크기, 즉 그들이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수단의 크기는 그들이 순수한 신앙의 진리에 따라 얼마나 선한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고, 그때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선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들과 함께 있던 악들이 떨어져 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부모들로부터 유전된 불결한 악들이 떨어져 나간다. (AC.8806:2)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806번 글 2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y who are of the spiritual church and live a life of truth and from this a life of good, are withheld from evils and are kept in good by the Lord. The good which is from the Lord is holy with them. Consequently insofar as they receive good from the

출19:21-25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Lord, so far they are holy; and they receive so much of good from the Lord, that is, are so far holy, as they live a life of good according to the genuine truths of faith, and at the same time believe that all the good which they then think and do is from the Lord. Then, too, evils with them are separated so as not to appear at all, especially those which they have derived hereditarily from parents,

이는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에 관한 주석 중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And sanctified the people*)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 광경을 그린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

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 산의 속뜻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은 주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사랑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좇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 속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 중에 가장 고결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 안으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고결한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서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시내 산, 즉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왜 새삼스럽게 주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다고 했을까요? 이미 계신데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가 주님의 완전한 거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 깊은 곳에 오신 주님이 그 밖에 있는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의 삶 가운데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면 깊은 곳에만 계시려 하지 않으시고, 그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거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 안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뚫뚫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통로가 닫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면 깊은 곳에 가두어놓은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닫혀있던 문을 여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 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그 통로가 닫혀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인간의 자유를 지극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유포(幽閉)되신 것처럼

출19:21-25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에서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옹기가마 연기 같은 것이 떠올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은 주님이 계신 내면 깊은 곳,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그 바깥쪽에 있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연기처럼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한 옹기가마 연기 같은 것이 떠오른다 했는데 그것은 많이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망의 불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옹기가마는 욕망의 불길이구요, 연기는 그 욕망들로부터 나오는 거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그토록 어둡고 불결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주님의 신성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리에게 선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시험을 겪으면서 선에 대한 열망을 키웁니다. 즉 시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선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애통함과 슬픔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질 때 주님은 우리 내면의 시내 산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주님이 활동하시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자체로 천국을 향해 뻗어나가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선의 힘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연결이 될 때, 천국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흐름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겉 사람으로 흘러들어오는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두 흐름이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상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주님의 질서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오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님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밀고 들어오면 죽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 백성의 속뜻은 바로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며,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통해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님에 대한 사랑, 또는 선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몸에 익혀야 할 사람이 그 단계를 건너뛰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올라가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며, 욕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를 보려고 밀고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의 분량만큼만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를 보려고 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선과 진리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경고를 또 하십니다.

22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주님은 왜 반복해서 비슷한 경고를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붕 뜹니다. 자기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바라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 자책도 하고, 심지어 자학까지도 하지만, 시험을 잘 극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선한 애정과 지혜가 흘러 들어올 때는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할 때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수 이상으로 선이나 진리를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고를 하신 것은

그래서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뜻으로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각자에게 있는 선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악습을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습을 끊었다가도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모습을 보고 남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독선에 빠진다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내가 한 것 같아도 모두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 생각할 때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악을 멀리한 다음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리가 행하는 선은 진정한 선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점점 순수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더럽혀진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주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결해지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치는 것**’의 속뜻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얻은 선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자 23절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²³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진리를 통해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경고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각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의 경계를 치라**’고 하시는데 산은 무슨 뜻입니까? 산은 우리 안의 가장 깊은 내면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경계를 세우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경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장 깊은 내면인 주님이 계신 곳과 겉 사람 사이에 있는 속 사람을 말합니다. 속 사람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산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번역은 한글 성경 번역이구요, 원문에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성결하게 한다는

출19:21-25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성결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성결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서에서는 성결해지는 것을 주께서 속 사람을 덮개로 덮는 것(*veiling over*)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 관련 원문입니다. AC.8806번 글이며, 출19:14,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sanctified the people” signifies the veiling over of the interiors that they may appear to be in the holiness of faith.

속 사람을 덮개로 덮는 것과 성결하게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덮개로 덮지 않으면 속 사람에 있는 악한 것이 겉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속 사람을 통해 궁극적으로 겉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속 사람을 통과할 때 악들이 같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겉 사람이 성결해집니다. 주님께서 덮개로 속 사람을 덮으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진리

입니다. 주님께서 속 사람을 덮개로 덮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겉 사람이 주님의 신성과 직접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신성은 속 사람을 덮고 있는 베일과 같은 덮개를 거치면서 신성의 열과 빛이 조절됩니다. 즉 주님께서 직접 나오는 사랑의 열기와 진리의 밝기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죽지 않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열기는 태양의 열기보다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의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그 열기에 직접 대면하고도 살아남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 사람에게 덮개를 덮으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의 열기와 빛을 조절하십니다. 겉 사람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직접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욕심이죠. 그것이 바로 시내 산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고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 또 경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계의 역할을 하는 속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속 사람의 악들이 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덮개를 덮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하시고, ‘산에 경계를 세우라’ 명령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산에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 위에 덮개를 덮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질서에 순종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려 하거나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선과 진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굴을 보기 위해서 시내 산을 침범하지 말라 경고를 하십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²⁴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세 번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 올라가는 것은 그 속뜻으로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진리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들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적 진리이며, 아론은 말이나 글자로 표현된 외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관한 글이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배우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아론으로 표상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들이 주님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진리들 안으로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출19:21-25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

그러므로 그것들이 능력의 진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나는데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우리 내면의 시내 산으로 오실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선을 뜻하고, 백성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적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과 진리를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의 양과 질에 따라 그것에 맞는 천국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연결이 될 때 그 천국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흘러 들어올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높은 천국, 즉 삼층천의 천사처럼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선과 진리를 욕심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걸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에둘러 표현하시면서 그 영적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신성의 흐름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성의 흐름과 서로 통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선 가운데로 오셔서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에게까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모세가 산 위와 산 아래를 오가면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심’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내 산에 오실 때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주님은 먼저 성결하라 하십니다.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일은 먼저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면의 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성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 사람 안에 덮개를 씌우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권고하시는 것은 시내 산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내 산 경계를 넘는 일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세 번이나 ‘**경계를 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진행될 때 교만해질 수 있으며, 그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선과 진리를 욕심내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그 이상 욕

심내는 것은 주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고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성결과 겸손을 진심으로 원하는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16:15)

아멘

원본

2017-03-0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2(D5)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